

지혜자 중의 지혜자를 알게 되는 기쁨

김광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면서 가정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커지기 시작하던 중 우리가 정은 4년 전, 큰아이 은수가 3살, 둘째 아이 우용이가 1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주 수요일 저녁, 잠든 아이들 옆에서 교회 주보의 가정예배 안내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순서로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잠든 아이들 옆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매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어린아이들을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은수가 4살, 우용이가 2살 되었을 때부터는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막내 우용이가 시작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제법 글씨를 읽게 된 은수는 성경봉독 하는 것을 기쁨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복음서를 좋아합니다. 우용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성경구절을 접하게 되었는데, 우용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데 왜 십자가의 못을 빼고 멋지게 내려오지 않았는지 물어왔습니다. 준비 없이 접한 아이의 질문에 좀 당황했지만, 우리의 죄와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나누었습니다. 가정예배로 5살 아들과 십자가의 기적을 나누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예배 때 아이들은 포키만 카드(Pokemon Cards), 장난감, 강아지 등을 갖고 싶다는 기도, 유대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포키만 카드는 안 돼, 그 장난감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라고 말하며 기도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우용이에게 기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눈치껏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께는 아무것이나 진실되게 다 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아이들과 주님과의 사이에 알게 모르게 벽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내어놓는 기도제목을 예수님께 마음껏 아뢰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에게 지혜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간구의 많은 부분들이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예배를 통해 배워가는 것이지요.

우리 부부는 가정예배를 통해 진솔하게 기도제목과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서있는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깨닫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 자녀양육, 부부관계의 지혜를 신실하고 세밀하게 가르치시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손수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혜자 중의 지혜자를 알게 되는 기쁨을 가정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광미 성도는 Montgomery Knolls 초등학교 ESOL 선생이고, 메릴랜드 Silver Spring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 신준영 성도와 함께 워싱턴감리교회 AWANA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